

투데이 칼럼

### 北 김정은의 공세적 전쟁 준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를 더욱 공세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남한 지도를 걸어놓고 지목하는 장면도 함께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장들을 사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현대화도 강조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함께 러시아를 향한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국방정책 방향을 정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는 김정은 위원장 옆으로 남한 지도가 걸려 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역은 서울 주변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부근으로 추정된다.

남한 지도를 걸어놓고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하라고 노골적인 대남 위협을 한 것이다. 대형 무장 장비들이 최대의 전투 효과를 발휘하도록 실전 훈련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 군수공장에 무기 대량 생산도 독촉했다.

또 오는 9월 9일 정권 수립일을 맞아 민간투력 열병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사흘간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 생산 공장 등 군수시설 여러 곳을 사찰했다.

지난달 러시아가 쇼이구 국방장관을 방북 뒤 이뤄진 일이다. 특히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정복규  
논설위원

주목을 끌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자연스럽게 북중러 연대를 이루고 외화벌이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국방부는 북러 간의 무기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선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전쟁 위협은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의식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미 백악관은 어떤 의제가 회의 테이블에 오를지 미리 예고할 건 없다면서도, 역사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백악관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 의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회의 장소도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 빌자인 캠프 데이비드는 외부 방해물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 중요한 국제 외교 무대가 돼 왔다.

1959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 흐루쇼프 서기장을 초청해 관계 개선을 논의했다.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중동평화협정을 이끌어냈다.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세 나라 정상 이 다자회의가 아닌 별도 회담으로 모이는 첫 자리다.

정상회의 정례화도 논의 중인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처럼 제도화된 협의체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작은

나토를 구축하려 한다면, 한미일 정상회의가 군사협력 체제 구축의 신포탄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리에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다층적인 군사 전략을 조율하는 등 대북 억지력 강화에 의미가 있다.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국 간의 단결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한미일의 국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다 다르다. 미국은 분명하게 중국 견제에 우선적인 비중이 실려 있다.

일본은 이른바 보통국가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 한미일 협력의 가장 우선 목표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다. 중국 봉쇄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세계전략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본과도 군사적으로 밀착해,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일 군사동맹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은 멀어지고 군비 경쟁만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미일의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북한이 아직 별 반응은 없다. 하지만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정권수립일 등을 계기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거란 관측이다.

### 사설

#### 잼버리 예고된 파행

새단금 잼버리는 마무리됐지만 되짚어 봐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대회 직전까지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소년 캠퍼리'는 새단금 세게스카우트잼버리를 40여 일 앞두고 열렸다.

전북지역 초·중학생 대원과 지도자 5백여 명이 세계 잼버리 아영장에 텐트를 치고 사흘간 지냈다. 이는 새단금 대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점검하고, 조사할 사항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기회였다.

폭염 대책은 물론 화장실과 급수대 등의 부족 문제가 이때도 지적됐다. 청소년 캠퍼리 참가자들도 잼버리 대회에서는 화장실과 샤워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늘도 없이 무척 덥겠다고 했다.

사전 행사 격인 프레잼버리를 건너편 상황에서 보완책을 세울 마지막 기회를 그대로 날린 것이다. 아영지 기반 시설 준비도 소홀하긴 마찬가지다. 간척지 매립이 늦어지면서

대회 시작까지도 일부 건물을 완공하지 못했다.

행사 열세 전에서야 겨우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조지위 운영본부와 병원으로 사용했다. 물 빠짐이 잘 안 되는 간척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배수 대책도 문제였다.

30억 원을 들여 저류지 1백 개를 만들고 양수기 2백여 대를 설치했지만, 비단 오면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태풍으로 인한 아영지 조기 철수 결정에 발미를 쳤다. 전라북도 관계자들도 물 빠짐 등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실토한다.

더구나 매립토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질이었다. 아영에 적합하지 않은 간척지에 대회를 유치하고도 사전 준비마저 소홀해 대회 파행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계자들은 입이 열 개라도 날릴 것이다. 아영지 기반 시설 준비도 소홀하긴 마찬가지다. 간척지 매립이 늦어지면서

#### 전라선 수서행 고속열차(SRT)

오는 9월 1일부터 전라선에 수서행 고속열차 'SRT(수서~여수)'가 매일 상·하행 2회씩 총 4회를 신규 운행한다. 이로써 전주, 남원에서 서울 강남권을 비롯 관고, 동탄, 광주 등 경기도 동남부지역의 환승 불편을 덜어 시간적·경제적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속열차 운행 횟수 증가로 전라선의 단성적인 좌석 부족 현상 해소와 관광객 유입 증가로 도내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서행 SRT의 전라선 신규 운행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 보고에서 수서발 3개 노선 고속열차 도입을 발표, 지난 8월 1일 (KSR)에 신규 노선 운행 면허를 발급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전라선(익산-여수), 동해선(수서-포항), 경전선(동대구-진주)이 3개 노선이 신규로 운행된다.

(KSR)은 신규 운행에 따른 예약·발매시스템을 11일 오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SRT(Super Rapid Train)는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다. 'SRT'는 운영사인 (KSR)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초고속 열차(Super Rapid Train)'의 약자이기도 하다. 시속 300km 내외의 속도로 달린다.

수서-부산 구간인 경부고속선과 수서-목포 구간인 호남고속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서역에서 평택 지역까지는 독자 노선을 보유하고 있고 전안아산역부터는 기존 KTX의 노선을 이용한다.

늦게나마 도민들이 철도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 수도권 동남부로 갈 때 겪어온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철도와 도로, 공항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SOC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이동시간 단축 등 교통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기 바란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라하이아 산불 실종자 수색하는 구조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 하와이주 마우이섬 라하이아에서 구조대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라하이아 산불로 지금까지 최소 11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종자가 1천 명 이상인 것으로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중인 하와이 주지사는 부동산 거래 중단을 추진하면서 산불 피해 주민 누구도 투기꾼에게 희생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어지는 폭염에 "물놀이 못 참지"



지난 17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빌뉴스 인근 호수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리투아니아 최고 기온이 32도를 기록하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